

## 환구시보 사설에 드러난 한국 ‘態度’ 비판적 담화분석: ‘당당한 외교’ 對 ‘不卑不亢的外交’

최 태 훈  
(건국대학교)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22년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한국 관련 환구시보 사설에 사용된 어휘, ‘態度’의 맥락적 지시사항에 대해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2022년 한국의 ‘態度’가 언급된 사설 네 편, 2023년 한국 관련 미·중의 ‘態度’가 언급된 사설 세 편, 한국의 ‘態度’가 언급된 사설 세 편을 포함해 총 10편의 환구시보 사설을 핵심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연구 문제는 ‘態度’의 언어 장치를 통해 환구시보 사설이 구축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 탐구로 CDA 1차원 텍스트 수행을 기술하고 2차원 담화 수행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2022년 환구시보 네 편 사설에서 ‘態度’의 지시사항은 동일하게 ‘務實理性(冷靜)’이었다. 이 ‘態度’의 의도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경제적 이득을 보며,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둘째, 2023년 미국의 ‘態度’를 언급 사설은 한·미를 이간하여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한국의 態度를 문제 삼아 중국의 말을 듣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2023년 중국의 ‘態度’를 언급한 사설은 표면적으로는 냉정·이성을 표방하여 긍정적이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는 냉정·이성은 받은 만큼 한국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2023년 환구시보 사설에 언급된 한국의 ‘態度’는 ‘현 정부의 오염수 방류 찬성’ vs. ‘전 정부의 단호한 오염수 방류 반대’, ‘당당한 외교’ vs. ‘不卑不亢的外交’, ‘韓中友好’ vs. ‘友好姿態’ 프레임을 형성한다. 한국과 美·일을 이간시키고, ‘中·韓’과 ‘미국’을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한국은 중국에게 돌아오도록 態度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어 : 비판적 담화분석, 태도, 당당한 외교, 不卑不亢, 務實理性

## 1. 서론: 연구방법론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미·중 신냉전 시대에 중국이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한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파시키려는 이데올로기 양상 고찰에 있다. 2022년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한국 관련 환구시보 사설을 수집하여 반복적으로 선택된 방아쇠 어휘인 ‘態度’를 핵심으로 비판적 담화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態度’가 사용된 각각 사설의 텍스트 맥락에서 ‘態度’의 ‘지시대상(레페랑, referent)’을 1차원 텍스트 기술하였다. 또한 여러 사설에서 ‘態度’의 반복적인 사용이 뜻하는 상호텍스트성 차원에서의 2차원 담화 수행을 해석하였다. 즉 이 논문은 비판적 담화분석의 1차원 텍스트 기술과 2차원 담화 수행 해석에 집중해서 환구시보 사설이 ‘態度’의 언어 장치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추적하였다.

본 논문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채택된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언어, 권력, 이데올로기의 삼각관계를 탐구하는 연구 방법론이다(Fairclough 1989/2011; 최윤선 2014). CDA에서 언어는 권력을 나르는 수레로 기능하며 권력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언어를 통해 형성되고 재편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권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설득될 수 있는 신념인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대중매체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데 미디어는 저널리즘의 중립정보보다는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가치 편향된 방식으로 사건과 현상을 보도한다(Fairclough 1995/2004). 나아가 미디어는 사건과 현상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인식틀(프레임)을 제공한다. 특히 신문의 사설은 정치미디어 담화의 속성을 띤다(이원표 2001). 사설에서는 신문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레임을 설정한다. 따라서 비판적 담화분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프레임을 찾아내는 것이다.

정치미디어 담화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또는 개념을 축으로 내재적 담화 질서를 형성해 특정 사안에 대한 프레임을 선점하고 사안의 변화 발전 양상에 따라 리프레임한다(이원표 2005). 이 과정에서 눈에 두드러지

는 현저성(salience) 효과를 주기 위해 방아쇠 어휘(trigger word)가 사용된다(김규훈 2019). 특정한 사진을 찍을 때 초점에 해당되는 것이 방아쇠 어휘이다. 방아쇠 어휘는 핵심 개념을 형성하는데 수집한 연구 자료에서 이를 찾아내 기술하는 것이 비판적 담화분석의 1차원 미시(micro) 층위 분석이다.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에는 수많은 요소가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신문 사설 필진은 자신이 주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어휘 및 개념을 신중하게 선택(selection)한다. 선택된 방아쇠 어휘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다음 사설에서도 동일한 어휘가 선택되어 하나의 일관된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를 구성하는 텍스트의 연계망이 구성된다(Fairclough 1995/2004). 이와 같은 담화질서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으로 텍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국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2차원 중위(meso) 층위의 분석에 해당한다.

정치미디어 담화분석은 언어·권력·이데올로기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권력의 편성과 재편 과정을 추적하는데 유용하다(Fairclough & Fairclough 2012/2015). 권력 형성은 상대편과의 동질성을 찾아내 연대감을 설득해내는 과정이다. 권력은 세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동질성을 부각하기 위해 필요악으로 적대적인 상대가 필수적이다. 정치미디어 담화에서 권력 재편에 자주 사용되는 언어 장치로는 ‘우리’와 ‘그들’의 인칭대명사가 자주 사용된다. ‘우리’로 묶여지는 집단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여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공동체적 유대감’(최윤선 2014:50)의 확장을 통해 공통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권력의 형성에서 결과적으로 내 편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와 ‘너희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인칭대명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은 텍스트의 맥락안에서만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어휘)는 기표(시니피앙, signifiant)과 기의(시니피에, signifié)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된다(최윤선 2014:50). 기표는 어휘의 기호적 형식이며 기의는 어휘의 사전적 뜻이다. 그런데 어휘의 구성요소는 소쉬르가 말한 기표와 기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시대상(레페랑, referent)’까지 포함한다(최윤선 2014:51). “해당 단어가 실제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을 언어학적 용어로 레페랑, 지시대상(referent)이라 부른다”(최윤선 2014:51). 비판적 담화분석에서 인칭대명사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방아쇠 어휘가 텍스트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은 텍

트가 맥락화되고 재맥락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변용되고 확대·재생산된다. 이를 통해 권력의 형성·재편을 위한 이데올로기는 생산·재생산된다.

다음은 연구 자료 수집 과정이다. 우선 2023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발간된 환구시보는 146편이다. 이 가운데, ‘韓國’, ‘韓方’, ‘美·韓’ 등 한국을 한 번이라도 언급한 사실은 총 13편이다. 그 가운데 7편이 한국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다룬 사실이었다. 다시 이 가운데 6편의 사실이 ‘態度’에 초점을 두고 방아쇠 어휘(trigger words)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눈에 띄게 만드는 현저성(salience) 기법으로 사실의 핵심 프레임을 구축한다. 6편의 사실에서 ‘態度’는 10회 사용된다. 10회의 ‘態度’는 미국, 중국, 한국과 관련된 態度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態度’는 4월 10일 2회, 4월 28일 1회로 총 세 번 사용되었다. 둘째, 중국의 ‘態度’는 5월 8일 1회 사용되었다. 셋째, 한국의 ‘態度’는 5월 26일, 6월 13일, 6월 28일 발간된 세 편의 사실에서 각각 2회씩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나아가 한국 관련 ‘態度’가 핵심 어휘로 사용되는 배경을 탐색하고자 필자는 2021년과 2022년도 자료를 역추적해 ‘한국 관련 態度가 언급된 사실’을 검색하였다. 먼저 2021년 환구시보가 발표한 394편 전체 사실을 검색해보면, 144편에서 ‘態度’가 235회 언급되었다. 사실은 미국의 ‘態度’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영국, 일본, 서방, 인도, 대만 등의 ‘態度’도 문제시했다. 다만 중국 자신과 관련하여 ‘態度’를 말할 때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1년 사실 어디에서도 ‘한국’과 연관된 ‘態度’는 검색되지 않았다.

2022년 환구시보는 발표 사실을 294편으로 대폭 줄였다. 이 가운데 113개 사실이 153회에 걸쳐 ‘態度’를 언급하였다. 역시 미국의 ‘態度’가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態度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 사실에서는 3월 8일, 3월 25일, 5월 10일, 8월 9일 발간된 네 편의 사실에서 각각 1회씩 한국의 ‘態度’를 4회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22년 한국의 態度가 언급된 사실 네 편, 2023년 미·중의 態度가 언급된 사실 세 편, 그리고 2023년 한국의 態度가 언급된 사실 세 편을 포함해 총 10편의 환구시보 사실을 핵심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본 논문은 환구시보 사실에 드러난 한국 관련 ‘態度’ 비판적 담화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22년 환구시보 사설의 한국 관련 프레이밍에 선택된 방아쇠 어휘인 ‘態度’가 각각의 사설 텍스트 맥락에서 지시하는 대상은 무엇이며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어떻게 재맥락화하는가? 둘째, 2023년 한국 관련 환구시보 사설에서 사용된 미·중 ‘態度’는 텍스트에서 무엇을 지시하며 상호텍스트성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셋째, 2023년 환구시보 사설에 언급된 미국과 중국의 態度와 대비해 사용된 한국의 ‘態度’는 어떤 텍스트적 실천과 담화적 수행을 하는가? 궁극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된 한국의 ‘態度’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생산·재생산하는가?

## II. 2022년 환구시보 사설 한국 관련 態度 분석

2021년 한국과 관련된 態度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환구시보는 2022년 3월 8일 1회, 3월 25일 1회, 5월 10일 1회, 8월 9일 1회 등 4편의 사설에서 각각 1회씩 한국과 관련된 ‘態度’를 언급했다(표 1 참조).

〈표 1〉 2022년 韓國 態度 관련 주요 사건과 환구시보 사설 제목

주요 사건	발간	사설 제목
3/7 왕이, “한국 대선 결과 상관 없이 한·중 관계 앞으로 나가고 물러서서는 안된다” 발언	3/8	中韓關係要往前走, 不能朝後退 중·한 관계는 앞으로 가야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3/25 시진핑, 윤석열 당선자와 전화 통화	3/25	中韓從通話看到了未來廣闊合作面 중·한은 전화통화에서 미래의 광활한 협력 방안을 보았다
5/9 왕치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5/10	對華關係, 尹錫悅最有望處理好的事 대 중국 관계, 윤석열이 가장 잘 할 것으로 기대하는 과제
8/8 박진 외교부 장관 칭다오 도착,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8/9일 박진·왕이 외교장관 회담	8/9	韓國堅持獨立自主外交, 自然贏得尊重 중 한국이 독립 자주 외교 견지 하면, 자연히 존중을 얻을 것이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 3월 8일 사설부터 갑자기

기 한국의 ‘態度’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한국 정권 교체 시기에 중국이 원하는 한국의 ‘態度’는 아래 사실 예문 ①의 “务实理性的态度”, ②의 “相向而行的态度[…]务实理性的積極信號” ③의 “务实冷靜的态度”에서 파악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务实’이란 어휘가 보이며,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를 검색해 보면 ‘务实’은 ‘Pragmatic’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에 힘쓰거나, 현실을 중시하는(바이두: 一指致力於實在的或具體的事情, 二指講究實際) 것으로, ‘물건이 실용적’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實用(Practical)’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態度를 말하거나 어떤 사람의 성격의 한 방면을 형용할 때 사용된다.<sup>1)</sup> 또한 ‘理性’ 2회, ‘冷靜’ 1회가 사용되고 있다. 화난 사람에게 중국어로 ‘冷靜點’이라 말하면, ‘理性’을 찾아 화를 가라앉히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두 어휘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지나치지 않고 절제하라는 의미가 교집합 안에 있다.

① 务实理性的态度[…]是化解中韩民间纷争的关键(실용적 이성적 태도가[…]한중 민간 분쟁 해결의 관건이다). (2022.03.08.)

② 从尹锡悦的表态中, […]这是一种与中国相向而行的态度;[…]这些务实理性的積極信號(윤석열의 발언에서[…]이것은 중국에게서 서로 향해 가겠다는 태도이다[…]이것은 실용적 이성적 적극 신호).(2022.03.25.)

③ 这种务实冷靜的态度, 是一个自尊自强的民族所必备的(이런 실용적이고 침착한 태도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2022.05.10.)

2022년 3월 8일 「中韩关系要往前走, 不能朝后退(중·한 관계는 앞으로

1) 「这两个词都可以表达“实用的”: 区别在哪里」, 『新浪教育』, 2016.05.19: 大多数情况下它的含义是“务实的”, 根据现实情况提出切合实际的解决方案. Pragmatic 是一个正式用语, a formal word, 在生活中用的很少. 当我们说起做事的态度, 或者我们想要形容某人性格的某一方面, 我们有时候会听到这个词[…]Pragmatic 是一个正式用语. 如果要描述某人是一个“务实的”人, 可以用 pragmatic 来形容他. 或者是对什么事情需要持有“务实的”态度也可以用 pragmatic.

<http://edu.sina.com.cn/en/2016-05-19/doc-ixfsenvm0474162.shtml>

(검색일: 2023.07.10.)

가야하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에서는 한국의 속담(“三個銅板買房，千兩黃金買鄰居”<sup>2)</sup>), 양국의 교역액, 지리적 환경,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실용적으로 힘쓰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이익인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김치 및 한복 등의 연원을 다투는 민간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절제하는 ‘態度’를 한국에게 가르치고 싶은 중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2022년 3월 25일 「中韩从通话看到了未来廣闊合作面(중·한은 전화통화에서 미래의 광활한 협력 방안을 보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시진핑 주석과의 우호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인용하며, 이것이 양국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는(相向而行) ‘態度’라고 말한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미국과 멀리 지내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한다면, 듣기에 따라서 한국인에게 일종의 협박처럼 들릴 수 있고,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 2023년 6월 8일 상하이밍·이재명 회동 당시 싱 대사 발언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사설에서는 누가 들어도 부담 없게 한국의 ‘態度’가 ‘실용적·이성적 적극 신호(务实理性的積極信號)’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한구시보는 한국의 ‘態度’에 ‘실용적·이성적’이란 이름값을 부여하여 중국의 의도를 한국에게 완화시켜 전파하고 있다.

2022년 5월 10일 「对华矣係，尹錫悅最有望處理好的事(대 중국 관계, 윤석열이 가장 잘 할것으로 기대하는 과제)」는 최근 미국이 한국을 예뻐하는 이유 가운데 한국의 국익에 반한 위험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한국 여론’을 소환한다. 바로 그러한 ‘한국 여론’의 態度가 실용적·냉정한 態度이며, 자존자강의 민족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自尊自強的民族所必備)이라고 추켜세운다. 즉 중국에게 유리한 ‘한국 여론’을 소환하여 미국과 관계를 멀리하고 실리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견지해야 할 ‘態度’라고

2) 원래 한국 속담은 ‘팔백 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이다. 왕이 외교 부장이 한국 속담을 인용한 발언이다. 중국이 천 냥 황금 가치의 이웃임으로, 한국이 가까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중국을 가까이 하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3월 8일 사설이 한중간의 교역액을 바로 다음 단락에 언급한 것을 보면 중국의 ‘務實’에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한편, 2022년 8월 9일「韩国坚持独立自主外交, 自然赢得尊重(한국이 독립 자주 외교를 견지하면,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을 것이다)」에서는 펠로시가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2022.08.04.),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무장관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8월 9일 한중 외무장관의 만남을 앞두고 한국이 중국을 위해 준비한 ‘펠로시 패싱’이란 선물은 중국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했다.

④一些现实情况的确实令人担忧, 倡导中韩互利共赢、友好合作的声音遭到削弱, 充满情绪化的、短视的、激进的态度却被强化(일부 현실 상황은 확실히 중국과 한국의 상호 이익, 윈윈 및 우호 협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약화되고,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이며 급진적인 태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2022.08.09.)

그러나 이 사실은 위 예문 ④에서 “일부 현실 상황(一些现实情况)”을 지칭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과거의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와는 달리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이며, 급진적인 태도(充满情绪化的、短视的、激进的态度)”로 바뀌어 “사람들(人)”을 걱정스럽게 한다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표명한다. 이 사실의 맥락에서 “일부 현실 상황”은 펠로시 패싱 관련 미·서방과 한국의 보수 언론이 조성한 반중 여론을, “사람들”은 중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의 결말인 마지막 단락에서는 앞선 3월 8일, 25일, 5월 10일 사실과 같은 주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한국이 나아가 ‘방향’, 즉 한국의 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韩国的利益诉求和政策取向, 與美日存在明显的区别. 隻要韩国坚持从自身现实及长远利益考虑问题, 那麼它與中国就有巨大的合作空间.(한국의 이익 요구와 정책 방향은 미국·일본과 분명히 다르다. 한국이 자국의 현실과 장기적 이익에서 문제를 숙고하는 것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래야 중국과 거대한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실과 장기적 이익을 언급하면 ‘务实’을 말하려는 것이고,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것은 ‘理性’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앞선 ①, ②, ③ 예문과 똑같이 한국이 가져야 할 態度로 务实과 理性을 강조한 것이다. ‘务实理性’의 態度가 갖춰져야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협력 공간(巨大的合作空间)’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④ 예문의 부정적, 비난조의 ‘態度’ 발언은 ‘务实理性’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던져 놓은 포석(布石)으로 판단된다.

일련의 ‘態度’ 발언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 협력해야 한국이 경제적 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협박한 셈이다. 또한 이것은 마치 선생이 학생에게 말하듯, 자세 똑바로 하고 앉으라고 말하는 식의 훈계로도 이해된다. ‘態度’ 발언이 확대 재생산된 것은 결국 한국이 중국의 말을 듣도록 가스라이팅하려는 의도가 있다. 즉 ‘务实理性(冷靜)’에는 한국의 ‘態度’를 중국의 생각과 동일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Ⅲ. 2023년 환구시보 사실 한국 관련 미·중 態度 분석

환구시보는 2023년 세 편의 사실에서 미국과 중국의 ‘態度’를 언급한다 (표 2 참조). 미국의 ‘態度’는 4월 10일 2회, 4월 28일 1회로 총 세 번 사용되었다. 중국의 ‘態度’는 5월 8일 1회 사용되었다. 이 사실들에서 미·중 態度의 언급은 한국에게 어떤 態度를 취할지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1에서는 미국의 態度를 3.2에서는 중국의 態度를 분석한다.

〈표 2〉 2023년 한국 관련 美·中 態度 주요 사건과 환구시보 사실 제목

주요 사건	발간	사실 제목
4/7 뉴욕타임즈 보도, 한국 및 동맹국들 정보 포함 도·감청 논란 커짐.	4/10	韩国不可能喜欢被监控的感觉 한국은 감시 조종당하는 느낌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4/26 한국 정부, 『위싱턴 선언』 가장 중요한 방미 성과	4/28	尹锡悦这次访美印证了一个评价 윤석열 이번 방미는 한 가지 평가를 증명했다

주요 사건	발간	사설 제목
5/4 주중 한국대사관 윤대통령 방미 관련 환구시보 보도·논평에 대해 “공식 항의” 서한 보냄	5/8	对韩国大使馆的“抗议”，本报有话要说 한국 대사관 “항의”에 대해, 본보는 할 말이 있다

##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지막지, 무자비, 무책임한 態度

2023년 4월 10일 환구시보는「韩国不可能喜欢被监控的感觉(한국은 감시조정당하는 느낌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를 발표한다. 본 사설은 미국의 한국 정부 도청 사건을 문제시한다.

⑤美国的这种蠻横态度與其盟友出於複杂考虑的姑息或者说纵容不無关系.[...]⑥信奉实力原则的美国[...]对盟友的态度不会比对待一个強大的所谓“对手”更心慈手软.(미국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태도는 복잡한 고려 사항에서 출발한 동맹국의 원칙 없는 관용 또는 방임과 무관하지 않다. [...]힘의 원칙을 믿는 미국은[...]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강력한 소위 “라이벌”을 대하는 것에 비해 더욱 자비롭지 않다.)(2023.04.10.)

⑤번 예문은 동맹국을 도청하는 미국의 ‘態度’를 ‘蠻横’으로 수식하고 있다. ‘蠻横’은 ‘거칠고 난폭하여, 도리를 따지지 않다(바이두: 态度粗野暴躁, 不讲道理)’라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態度가 ‘무지막지하다(네이버)’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설은 도청한 미국을 비난함과 동시에 그 책임이 동맹국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무지막지한 態度를 취하는 이유가 동맹국의 원칙 없는 관용(姑息) 또는 방임(纵容)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질서와 정의를 수호하는 동맹국의 반대(反對)와 항의(抗議)가 있어야 한다(来自盟友从维护国际秩序和正义角度的反对和抗议)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환구시보는 한국의 對美 ‘態度’의 가이드 라인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을 향해 반대와 항의를 할 줄 아는 원칙을 견지해야 존중을 받는다고 말하며, 호랑이(미국)를 위해 앞잡이(창귀: 한국) 노릇을 하면, 마지막엔 호랑이에게 상해를 입는다(坚持原则将赢得尊重, 而为虎作伥, 最後一定会被虎所伤)는 협박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为虎作伥)’라는 4자 성구는 다른 사설에서도 캐나다·호주

(2022.06.16.), 일본(2023.04.03.)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게 '爲虎作倖'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국이 캐나다, 호주, 일본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마저 미국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중국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따라서 ⑤번 미국의 무지막지한 '態度'가 사용된 이유는 한국을 미국과 이간시켜, 한국이 친미를 버리고 친중으로 '態度'를 취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⑥번 예문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態度'가 강력한 라이벌을 상대하는 것에 비해 자비롭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이 말만 동맹국 운운하지 사실상 라이벌 국가를 대하는 態度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미국의 냉혹한 '態度'를 언급한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본질을 파악하여 미국과 멀어지도록 유도함에 있다. ⑤번과 ⑥번에서 언급된 미국의 態度는 한국과 미국의 이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친미 국가로 포지셔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3년 4월 28일 환구시보는 「尹锡悦这次访美印证了一个评价(윤석열의 이번 방미는 하나의 평가를 증명했다)」를 발표한다. 사실은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싱턴 선언」이 윤석열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고 언급한다.

⑦韩国如果真想要安全感, 需要敦促美国以更负责任的态度来制定对朝政策, 與各方一起推动半島無核化进程. (한국이 진정으로 안정감을 원한다면, 미국이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당사국들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독촉해야 한다.)(2023.04.28.)

그러나 ⑦번 예문과 같이 한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한다면 미국과 이간질을 부추긴다. 또한 미국에게 모든 당사국들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독촉(敦促)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을 독촉한다. 이것은 앞선 4월 10일 사실 ⑤번 예문과 같은 논조이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된 이유가 한국의 원칙 없는 관용(姑息) 또는 방임(縱容)에 있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논리로 4월 28일 사실 ⑦번 예문에서는 미국에게 모든 당사국들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도록 독촉하지 않는 한

국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무엇을 하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두 사실이 미국의 ‘態度’를 언급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한·미를 이간하고 미국을 ‘관용’, ‘방임’하여 ‘독촉하지 않는’ 한국의 態度를 비난하기 위함에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態度’를 언급한 2편의 한국 관련 사설은 무지막지·무자비·무책임한 호랑이(미국)의 態度를 표면에 내보여 한국과 이간하여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관용·방임·아무것도 독촉하지 않는 앞잡이(한국)의 態度를 문제 삼아, 중국 말을 듣게 만들어 ‘우리’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 2.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態度

2023년 4월 10일, 28일 미국의 ‘態度’를 지적한 환구시보는 5월 8일 「对韩国大使馆的“抗议”，本报有话要说(한국 대사관의 “항의”에 대해, 본보는 할 말이 있다)」에서 중국 언론사의 ‘態度’를 언급한다.

⑧我们正是秉持这样的冷静和理性态度，以一家中国媒体的身份，希望與韩方达到一種坦诚且深入沟通的效果。(이러한 차분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중국 언론사로서 한국 측과 솔직하고 심도 있는 소통을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을 언급한 사설 가운데 댓글이 2916개로 가장 많았던 5월 8일 사설은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 발표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앞둔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또한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인터뷰가 발표된 후에 중국의 반응은 대단히 거칠었다. 2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不容他人置喙)”, 21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在臺灣問題上玩火者必自焚)”<sup>3)</sup>, 뒤이어 23일 환구시보는 「这件事上，韩国外交的“国

格”碎了一地(이 사건으로 한국의 “국격”이 산산이 부서졌다)를 발표했다. 사실은 워싱턴 쪽에 버려둔 “국격”과 외교적 자존심을 중국에게 강하게 보여 만회하러 하는지?(在华盛顿那里丢掉的“国格”和外交自尊, 想通过对中国示强找补回来吗), 한국 외교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韩国外交该深刻反思了)며 비난했다. 이미 한·중 간에 외교적 마찰이 본격화된 것이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방미의 결과물로 미국과의 합의로 만들어 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에 크게 불만을 들어왔던 중국은 환구시보 4월 28일 「尹锡悦这次访美印证了一个评价(윤석열의 이번 방미는 하나의 평가를 증명했다)」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대해 민족 독립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이번 방미를 통해 입증했다(对美国最不具有民族独立意识的, 这次访美无疑印证了这个评价)고 비난한다. 이에 주중 한국 대사관은 5월 4일 환구시보 및 Global Times 측에 최근 한국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 서한을 송부하게 된다. 그 내용 가운데 “귀 신문사의 최근 일련의 보도는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양 국민 간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뿐인바 귀사에서는 글의 게재에 있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sup>4)</sup>이라 말하며, 언론사의 보도 ‘態度’를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⑧번 예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항의에 대하여 환구시보는 ‘冷靜’하고 ‘理性’적인 ‘態度’를 유지하여 한국과 솔직하고 심도 있는 소통을 바란다고 언급한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합리적인 ‘態度’로 인식된다. 3.1의 ‘미국의 態度’가 무지막지하고·무자비하고·무책임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환구시보의 ‘冷靜’하고 ‘理性’적인 態度는 바로 ‘중국의 態度’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말미에 한국의 “항의”에 대해, 환구시보도 항의를 한다고 밝힌다(对这样的“抗议”, 我们也表示抗议). 이

3) 박광연·김윤나영(2023.04.21.), 「윤 대통령 ‘대만 발언’에 한·중 관계 급속 냉각… 무엇이 문제됐나」,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4212118001#e2b> (검색일: 2023.07.23.)

4) 남진·임혜림(2023.05.04.), 「주중대사관, 환구시보 및 Global Times 측에 최근 한국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 서한 송부」, 『주중한국대사관 보도자료』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4981/view.do?seq=7&page=1](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4981/view.do?seq=7&page=1) (검색일: 2023.07.28.)

것은 2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2022년 중국이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務實理性(冷靜)’의 ‘理性(冷靜)’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잘 판단해서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가 2022년의 ‘이성(냉정)’이었다. 반면 ⑧번의 ‘이성(냉정)’은 한국의 항의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화를 누르고 한국에게 받은 만큼은 되돌려 주겠다는, 즉 항의에 항의로 되돌려 주는 ‘냉정’, ‘이성’적 ‘態度’인 것이다.

#### IV. 2023년 환구시보 사설 한국 관련 態度 분석

환구시보는 2023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발표한 146편 사설 가운데, 총 세 편의 사설에 한국의 ‘態度’를 언급한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5월 26일 2회, 6월 13일 2회, 6월 28일 2회, 총 6회에 걸쳐 한국의 ‘態度’를 언급했다. 이 세 편의 사설은 최근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수반되는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국의 ‘態度’를 논의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2022년도의 환구시보 사설 한국 관련 ‘態度’와는 사뭇 다르다. 22년도의 ‘態度’가 한국을 헐박·훈계하여 중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일관된 언어전략이라면, 23년도는 외교적 변화를 시도하는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態度’를 사용하였다.

〈표 3〉 2023년 韓國 態度 관련 주요 사건과 환구시보 사설 제목

주요 사건	발간	사설 제목
5/26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조사단 귀국	5/26	給核排污當托? 請首尔摸摸自己的良心. 핵배출 오염수 믿어도 된다? 서울은 스스로 양심 가책 느껴야
6/8 싱하이밍·이재명 회동시 상대사 발언 외교적 마찰 점화 6/9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당당한 외교’ 발언	6/13	韩国外交离“不卑不亢”越来越远了 한국 외교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것에서 갈수록 멀어져 간다
6/18 미 블링컨 장관 중국 방문 6/25 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 측과 전략적 소통 강화’ 발언	6/28	该怎么看韩国近期对华吹出的“暖风”? 최근 한국 對 중국 훈풍 어떻게 봐야 하나?

## 1.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에 대한 한국 態度 분석

2023년 5월 26일 환구시보는 「給核排污當托? 請首尔摸摸自己的良心(핵 배출 오염수를 믿어도 된다고? 서울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를 발표한다. 다음은 이 사설에서 態度가 언급된 예문이다.

⑨在美国氣候问题特使在“关键时刻”访问了韩国之後，首尔的态度就出现了微妙的转变。⑩尤其尹锡悦政府一改前任政府对福島核污染水排放計劃的堅定反对态度(미국의 기후 문제 특사가 중요한 시기에 한국에 방문한 후, 서울의 태도는 미묘한 전변을 보여주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전임 정부의 단호한 반대 태도를 한 번에 바꾸었다.)(2023.05.26.)

먼저 2023년 5월 26일 사설의 위 예문에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즉 ‘首尔’, ‘尹锡悦政府’, ‘前任政府’ 등이다. 특이한 점은 ‘서울(首尔)’이란 표현이다. 사설은 미국의 기후 문제 특사가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이후, 서울의 태도(首尔的态度)가 미묘한 전변을 보여주었다고 전한다(⑨번 예문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후 문제 특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21년 4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를 말한다. 당시 문제인 정권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요청한다. 그러나 케리는 18일 서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안전 검증은 IAEA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 말한다.<sup>5)</sup> 사실상 그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절한 것이며, 한국을 압박한 모양으로 비춰진다.

케리의 부정적 발언이 있는 다음 날 2021년 4월 19일, 정의용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관련 질문을 받고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발언한다.<sup>6)</sup> 17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5) 김동현(2021.04.18.), 「한국의 개입 요청에 미국 "부적절"...쉽지 않은 오염수 외교 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8037500504> (검색일: 2023.07.26.)

를 위한 정의용의 미국 개입 요청과 19일 그의 발언 사이에는 환구시보의 표현처럼 “미묘한 전변(微妙的转变)”이 생긴 셈이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첫째, 환구시보는 케리의 방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전임 정부의 態度’가 미묘한 전변을 보였다가 아니고, ‘서울의 태도(首尔的态度)’를 주어로 써서 미묘한 전변의 주체가 전 정부인지, 현 정부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셋째, ‘특히(尤其)’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미묘한 전변’을 이어받아 강화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 듯 한 뉘앙스를 만들어 냈다. 넷째, 전임 정부의 ‘단호한 반대 태도(坚定反对态度)’라고 표현하여(⑩번 예문), ‘미묘한 전변’ 역시 전임 정부와 무관한 것으로 독자가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태도(首尔的态度)’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계획에 대한 전임 정부의 단호한 반대 태도(前任政府对福岛核污染水排放计划的坚定反对态度)’는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 vs. 전임 정부 단호한 반대’라는 프레임을 ‘미묘’하게 만든 효과가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일종의 조작인 셈이다.

## 2. 싱하이밍 · 이재명 회동 관련 중국에 대한 한국 態度 분석

2023년 6월 13일 환구시보는「韩国外交離“不卑不亢”越来越远了(한국 외교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것으로부터 가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를 발표한다. 이 사실은 한국의 ‘態度’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한 핵심 사설로 ‘態度’ 관련하여 절정에 해당한다.

⑪它首先是脱胎於美国“实力外交论”的韩国版，其次反映出韩国當局心态的日益膨胀，這種膨胀特別體現在对华态度上.[...]⑫首尔隻有端正对华态度，才不至於动辄“過敏”，不断自证小国心态.(그것은 첫째, 미국의 “실력외교론”에서 탈태한 한국판이고, 둘째는 한국 당국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허세의 증가이다, 이런 종류의 허세는 특히 중국에 대한 태도

6) 차용환(2023.05.26.),「野오염수 비판에 대통령실 “文정부도 동의해”」,『STV』,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65655>(검색일: 2023.07.28.)



에 특별히 들어난다.[...]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단정히 해야 비로소  
특하면 “과민하지” 않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소국적 사고방식을 스스로  
증명하는데 이르지 않게 된다.(2023.06.13)

2023년 6월 8일 싱하이밍·이재명 회동 당시 싱 대사의 발언으로 시작된  
한·중의 마찰은 위의 6월13일 사실 발표를 촉발했다. 나아가 6월 9일 한국  
국가안보실장 조태용은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  
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sup>7)</sup>고 발언  
한다. 사실은 이 발언을 다음과 같이 중국어로 번역한다.

韩国国家安保室室长赵太庸9日稱, 将奉行與“今非昔比的国力”和“国民  
见识”相稱的“不卑不亢的外交”,以構築“健康的韩中关系”.(2023.06.13.)

여기서 문제는 한국어의 ‘당당한 외교’를 ‘不卑不亢的外交(비굴하지 않  
고, 거만하지 않은 외교)’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이 말하는 ‘당  
당하다’는 말은 ‘不卑’(비굴하지 않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不亢(거만하지  
않다)’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은 ‘不卑不亢的外交’가 미국의  
‘실력외교론(实力外交论)’의 한국판이며, 나날이 증가하는 한국 당국의 허  
세를 반영하고, 그 허세는 중국에 대한 태도(对华态度)에 확실히 들어난다  
고 설명한다(⑩번 참고). 또한 ‘不卑不亢的外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굴”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거만”하게 돌출되게 표현하고 있다(突出表现  
在对美日“卑”, 对中国“亢”)고 언급한다. 따라서 ⑩번 예문의 첫 번째 한국  
의 ‘態度(对华态度)’는 미국에 비굴하고 미국도 아닌 것이 중국에 허세를  
부리며 거만하다고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다. 또한 ‘당당한’  
을 ‘비굴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은(不卑不亢)’으로 왜곡하여 번역한 이유는  
한국을 미국과 이간하려는 중국의 의도인 것이다.

나아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

7) 유영목(2023.06.09.),「조태용“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관계 만들 것”」,『SPN서울  
평양뉴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18> (검색일:  
2023.07.29.)

一是[……]押注美国是激进的赌徒心理, 非常不理性; 二是不断膨胀的大国抱负和实际上狭隘的氣度心胸之间的失衡, 这让韩国外交充满了自相矛盾, 既高度自尊, 又敏感、多疑和脆弱, 非常不成熟.(첫째,[……]미국에 올인하는 것이 무모한 도박꾼의 심리이며, 대단히 비이성적이며[……]둘째, 부단히 부풀어가는 대국의 포부와 실제의 편협한 도량 사이의 균형을 잃음이다. 이것은 한국 외교로 하여금 상호모순으로 가득하고, 자존심 높고, 민감하고 의심 많고 취약하여 대단히 성숙하지 않게 한다.)(2023.06.13.)

여기서 ‘외교’를 ‘態度’로 치환해 이해하면 중국의 의중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처럼 대국도 아닌데 마치 대국 행세를 하며 어깨에 뿔이 잔뜩 들어간 사람처럼 과장된 바램으로 가득하나 실제로 속이 좁아 균형형을 잃었다고 한국을 비하하는 것이다. 뒤이어 사실은 한국 외교에 대한 비하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 즉 한국의 외교 態度가 상호모순적이고, 자존심 높고, 민감하고 의심 많고 취약하여 대단히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은 서울은 對 중국 ‘態度’를 단정(端正)히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⑫번 예문 참조). ‘단정(端正)’은 자세가 매우 곧다(姿勢挺直), 품행단정(品行端正) 등 ‘態度’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휘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태도를 단정히 하라고 말할 수 있는 화자는 지위가 높은 권력자이며, 청자는 지위가 낮고 권력이 없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단정(端正)’을 요구하여 자신들이 높은 지위의 권력자임을 드러낸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態度’를 취해야 과민(過敏)한 소국의 사고방식(小国心态)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타이르듯 사실을 마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더 가깝다. 사실은 한국을 소국의 사고방식이라 비난하고 싶고, 소국의 사고방식이 되지 말라고 협박하고 싶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국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싶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소국’이라는 프레임에 한국을 가두어 무엇을 해도 한국은 소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다. 이것은 ‘態度’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국 중국 앞에 소국 한국의 態度를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강한 비난은 항상 깊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김주환, 2023). 한국이 친미로 편중되고, 한미일 공조가 공고히 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不卑不

宥’에서 멀어지고, 상호모순되고, 민감하고, 의심 많고, 취약해서 대단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한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심리적 기저에는 중국 역시 ‘不卑不亢’하지 않고, 상호모순되고, 민감하고, 의심 많고, 취약해서 대단히 미성숙한 두려움이 내재 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박진 “韓中友誼” 발언 관련 중국에 대한 한국 態度 분석

2023년 6월 28일 환구시보는「该怎麽看韩国近期对华吹出的“暖风”? (최근 한국의 대 중국 훈풍은 어떻게 봐야 하나?)」를 발표한다. 다음은 본 사설에서 ‘態度’가 언급된 예문이다.

③在接连挑起对华外交风波、展示“对华强硬”之後，首尔方面这两天似乎态度突变，高调谈起“韩中友谊”[...]④关键还不仅是态度的问题(중국에 대해 연이은 외교 풍파를 연달아 일으키며 “대중 강경”론을 드러낸 후에, 서울은 지난 이틀 동안 마치 태도가 돌변한 듯, “한·중 우의”를 외치고 있다[...]관건은 태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다).(2023. 06.28.)

이 사설은 서울이 “대 중국 강경(对华强硬)” ‘態度’에서 갑자기 돌변하여 “한중우의(韓中友誼)”를 말한다고 포문을 연다. 2023년 6월 18일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한국이 “한중우호(韓中友好)”를 증진시키려 한다고 발언한다. 또한 이런 한국의 모습이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이런 “우호자태(友好姿態)”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된다고 말한다(要增进“韩中友好”，但给人感觉却依然是随着美国的指挥棒起舞，这样的“友好姿態”能产生多大效果，令人懷疑). 이로써 한국이 취한 “한중우의”, “한중우호”의 ‘態度’는 “우호자태”로 전략해 버리게 된다. “자태(姿態)”는 용모가 출중(容貌出衆)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 중국 ‘態度’는 미국의 연주에 맞춰 중국을 유혹하려(우호적으로) 춤을 추는 용모 출중한 무희의 ‘姿態’로 격하되어 버린다.

따라서 무희의 ‘姿態’ 같은 ‘態度’로는 한중간의 진정한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의미로 “관건은 態度의 문제뿐만이 아니다(关键还不仅是态度的问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6월 28일 사설은 한국의 態度 문제를 넘

## 어선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가?

韩方在萨德、芯片等问题上配合美国损害中国利益[...]在臺灣问题上, 韩国是否会退回到它本来的“局外人”位置; 在华盛顿“脱钩断链”、对华打压的战略中, 韩国扮演的究竟是沟通者还是帮凶的角色; 在地区安全问题上, 韩方究竟是要维护共同的和平, 还是为“北约亚太化”铺路[...]不仅处处对标美国, 甚至学着华盛顿的腔调, 以“今非昔比的国力”跟中国打交道, 或者将“说一套做一套”那些恶习学了去, 中国人对首尔难有好感将不可避免.[...]回归理性、务实, 将是尹锡悦政府最终不得不面对的唯一正确选项.(한국은 사드, 반도체 등에서 미국과 공조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본래의 아웃사이더의 위치로 물러설 것인지 아닌지, 워싱턴의 “디커플링”과 對 중국 압박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소통자인지 아니면 흉악범을 돕는 역할을 할지, 지역 안보 문제에서 한국이 공동 평화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를 위한 길을 닦을 것인지[...]사사건건 미국을 대신해 말하고, 심지어 워싱턴의 역양까지 배워, “과거 같지 않은 국력”으로 중국을 상대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약속을 배우면, 중국인들은 서울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가 없다.[...]이성적이고 실무에 힘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궁극적으로 직면해야 할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위의 사실 내용은 2023년 상반기 환구시보 사설의 한국 態度 지적이 가리키는 최종본이 무엇인지를 설파하고 있다. 態度 지적을 실질적인 권력 행사와 재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상대방의 문제 행동을 지적해서 궁극적으로는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사용은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드는 자의 위치 설정(positioning)을 정해줌으로써 권력관계의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사실 내용은 한국의 불량한 態度 수정을 넘어서 적절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지적한다. 첫째, 중국 군사(사드) 및 경제(반도체) 이익 침해, 둘째, 중국 내 정간섭(대만문제), 셋째, 중국 안보 위협(나토 아태평양화), 넷째, 중국 협박(미국 대변인, 당당한 외교, 언행 불일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의 2023년 문제적 행동을 수정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의 態度, 즉 ‘務實理性’ 態度로 돌아가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한국은 태도를 수정하여 친중으로 정

체성을 전환하여 중국과 한국이 ‘우리’가 되고, 미국은 공동으로 배제하여 ‘그들’로 규정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중국과는 실속 차리고 미국과는 냉정하게 거리 두라는 2022년의 ‘務實理性의 態度’ 이데올로기의 확대·재생산으로 상호텍스트성의 전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미·중 신냉전 시대에 중국이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한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양상을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한국 관련 환구시보 사설에서 반복적으로 선택된 방아쇠 어휘인 ‘態度’가 지시하는 대상이 텍스트에서 맥락화·재맥락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설이 전파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態度’가 사용된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사설들이 생산·재생산한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환구시보가 한국을 설득하고자 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적 기제는 한국의 ‘態度’로 ‘務實理性(冷靜)’이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며, 미국을 멀리하는 態度를 한국이 갖도록 지속적으로 중국의 의도를 반복한다. 한편, 2023년 사설에서 미국 ‘態度’는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하고, 무책임하다고 프레이밍한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의 ‘態度’는 꺾개의 態度이다. 반면 환구시보(중국)는 자신들의 ‘態度’가 ‘冷靜’하고, ‘理性的’이라 언급한다. 미국의 態度와 대조적이고, 2022년 환구시보가 한국에게 집중적으로 반복했던 ‘務實理性(冷靜)’의 ‘理性(冷靜)’과 같다. 중국의 의도는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뚜렷히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친미로 흘러감에 따라 사설은 2023년에 한국이 보여준 態度를 조목조목 부정적인 개념으로 프레이밍 하였다. 첫째, 전 정부의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對中 외교 態度와 대조해 현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용 態度를 지적한다. 둘째, 비굴·거만·허세·편협한 도량·단정치 못함·과민·소국적 사고방식 態度로 프레이밍한다. 셋째, 대중 강경 態度와 중

국에게 우호적인 척하는 態度로 개념화하여 문제시한다. 이와 같은 문제적 態度의 수정을 지시한다. 나아가 態度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행동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전체 사실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2023년의 문제적 態度를 고쳐 2022년 실용적, 이성적(務實理性) 態度로 돌아가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구시보 사설은 중국이 의도하는 中·韓 외교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이데올로기 기구로 기능한다. 연구 대상 사설은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態度’의 지시사항을 ‘不卑不亢’으로 재맥락화한다. ‘態度’가 갖는 지시대상의 유연성으로 인해 정치미디어 담화인 환구시보 사설에서 반복적으로 프레이밍·리프레이밍 된다. 사설은 ‘不卑不亢’을 통해 세계 층위에서 태도의 지시대상을 다층적이고 함축적으로 재구성한다.

첫째 층위는 해당 사설의 맥락에서만 알 수 있는 지시사항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즉 ‘不卑不亢’은 ‘당당한 외교’의 직역이다. 둘째 층위는 ‘不卑不亢’의 의역으로 전체 사설의 맥락에서는 ‘미국에 비굴하고 중국에 거만한’ 態度로 재맥락화되어 ‘당당한 외교’의 의미가 왜곡된다. 한국 정부의 대중 ‘당당한 외교’는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굴하고 중국에 거만한’ 뜻으로 해석된다. 셋째 층위는 현 상황에 대한 중국의 ‘두려운 態度’를 암시하고 있다. ‘不卑不亢’은 한국의 할 말은 한다는 ‘당당한 외교’ 방침을 ‘공세적 외교 정책’으로 받아들여 이에 맞서 구축한 중국의 대항 이데올로기이다. 일반적으로 대항 이데올로기는 약자가 취하는 스탠스이다. 중국이 한국을 ‘소국’이라고 빈번히 프레이밍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에 대해 거만하고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굴종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중국에게 할 말은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세력 약화를 두려워하는 중국은 ‘소국의 態度’로 한국을 규정해 중국 편인 ‘우리’를 만든다. 마치 선생님과 학생, 상사와 부하, 임금과 신하 등에 보이는 ‘우리’ 관계와 같다. 한국의 집단적 정체성을 위치짓기 (positioning) 위해 환구시보는 반복적으로 한국의 態度를 지적하여 ‘소국의 態度’를 유지하라며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당당한 외교’를 버리고 ‘실용적, 이성적’ 態度를 취하며 숙이고 들어오면, ‘中·韓’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中·韓은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대국’

과 ‘소국’의 관계로서의 ‘우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환구시보 사설에 드러난 한국 ‘態度’는 미국을 ‘그들’로 규정하여 한국과 갈라놓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숨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설의 일련의 ‘態度’는 중국은 한국과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우리’로써 ‘동질감’과 ‘연대감’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態度’는 한국의 집단적 ‘정체성’이 ‘우리’인 중국에 있다는 것을 지시사항으로 설득하는 고도의 수사적 장치로 사용되었다.

## ■ 참고문헌

- 김규훈(2019), 「욕설 댓글의 틀(frame) 분석을 통한 댓글 사용자의 의도성  
범주화: 환경(environment) 분야 기사를 대상으로」, 『사회언어학』 27,  
한국사회언어학회, 1-24.
- 김주환(2023), 『내면소통』, 인플루엔셜.
-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이원표(2005), 「신문 사설에서의 직접인용: Bakhtin의 ‘대화성’ 관점에서의  
분석」, 『담화와 인지』 12:2, 담화·인지언어학회, 117-151.
-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orman/김지홍 역(1989/2011), 『Language and Power/언어와 분  
석』, 경진.
- Fairclough, Norman/이원표 역(1995/2004), 『Media Discourse/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Isabela & Fairclough, Norman/김현강·신유리 역(2012/2015),  
『Political Discourse Analysis/정치담화분석』, 박이정.
- 김동현(2021.04.18.), 「한국의 개입 요청에 미국 “부적절”...쉽지 않은 오염  
수 외교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8037500504>(검색일:  
2023.07.26.)
- 남진·임혜림(2023.05.04.), 「주중대사관, 환구시보 및 Global Times 측에 최근  
한국 관련 보도에 대한 항의 서한 송부」, 『주중한국대사관 보도자료』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4981/view.do?seq=7&page=1](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4981/view.do?seq=7&page=1)  
(검색일: 2023.07.28.)
- 박광연·김윤나영(2023.04.21.), 「윤 대통령 ‘대만 발언’에 한·중 관계 급속 냉  
각...무엇이 문제됐나」,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4212118  
001#c2b](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4212118001#c2b) (검색일: 2023.07.23.)
- 유영목(2023.06.09.), 「조태용 “당당한 외교로 건강한 한중관계 만들 것”」,  
『SPN서울평양뉴스』.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18>

(검색일: 2023.07.29.)

차용환(2023.05.26.),『野오염수 비판에 대통령실 “文정부도 동의해”』,『STV』,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65655>

(검색일: 2023.07.28.)

環球時報(2022.03.08),『中韩關係要往前走, 不能朝後退』

環球時報(2022.03.25),『中韩从通话看到了未来廣阔合作面』

環球時報(2022.05.10),『对华關係, 尹錫悅最有望處理好的事』

環球時報(2022.08.09),『韩国坚持独立自主外交, 自然贏得尊重』

環球時報(2023.04.10.),『韩国不可能喜欢被監控的感觉』

環球時報(2023.04.23.),『这件事上, 韩国外交的“國格”碎了一地』

環球時報(2023.04.28.),『尹錫悅这次訪美印證了一個評價』

環球時報(2023.05.08.),『对韩国大使馆的“抗議”, 本报有话要说』

環球時報(2023.05.26.),『給核排汚當托? 請首尔摸摸自己的良心』

環球時報(2023.06.13.),『韩国外交腐“不卑不亢”越来越远了』

環球時報(2023.06.28.),『该怎么看韩国近期对华吹出的“暖風”?』

<https://opinion.huanqiu.com/editorial> (검색일: 2023.07.10.)

❖ ABSTRAC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Korean ‘Attitudes’  
in the Editorials of *Global Times*:  
‘Confident Diplomacy’ vs. ‘Neither Submissive nor Arrogant  
Diplomacy’

Choi, Tae-Ho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of the contextual indications of the lexeme, ‘attitude’ in Korea-related *Global Times* editorials published from 2022 to the first half of 2023. A total of 10 editorials were collected as the core data for the analysis, including four editorials mentioning Korea’s ‘attitude’ in 2022, three editorials mentioning US-China’s ‘attitude’ towards Korea in 2023, and three editorials mentioning Korea’s ‘attitude.’ The research question was to explore the hidden meaning constructions of the editorials through the linguistic device of ‘attitude,’ by describing the first dimensional textual practices and interpreting the second dimensional discourse practices based upon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The research findings include first that, the referent of ‘attitude’ in the four editorials of 2022 was the same: pragmatic and rational attitude. The intention of this ‘attitude’ is that Korea should stay close to China, see economic benefits, and distance itself from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editorial referring to the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in 2023 is intended to divid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o ‘us’ and ‘them’ and to make South Korea listen to China by criticizing its attitude. The editorials referring to China’s ‘attitude’ in 2023 are ostensibly positive in terms of cold and rationality, but in reality, the

cold and rationality they refer to means giving back to South Korea what it has received. Third, South Korea's 'attitude' in the 2023 editorial is framed as 'the current government's favorable discharge of polluted water' versus 'the previous government's resolute opposition to the discharge of polluted water,' 'confident diplomacy' versus 'neither submissive nor arrogant diplomacy,' and 'Korean-Chinese friendliness' versus 'friendly gesture.' It divides Korea and the U.S. and Japan, divides 'us' and 'them,' and demands that Korea changes its attitude to return to China.

Keywords: CDA, Attitude, Confident Diplomacy, Neither Submissive nor Arrogant Diplomacy, Pragmatic and Rational Attitude

- 논문투고일 : 2023. 08. 24
- 심사완료일 : 2023. 10. 10
- 게재확정일 : 2023. 10. 11

